

충남의 섬

갯벌 위로 소달구지가  
이어지는 섬, 옹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이재언 연구원

## 옹도 개요

옹도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옹도리에 딸린 섬으로, 면적 1.58km<sup>2</sup>, 해안선 길이 5km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곰이 웅크리고 앉은 형태와 같다고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옹도는 물에선 불과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육안으로 봐도 가깝다. 간조 때에는 도보로 통행이 가능하고, 만조 때에는 선박을 이용한다. 조선시대 김자점이 역적으로 몰려 이곳으로 귀양 오게 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옹도 도비관



가로림만을 모르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충남 태안반도의 가장 큰 만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을 것이다. 태안반도에는 크고 작은 만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간척사업 열풍이 불어 닥치면서 가로림만을 제외하고는 남김없이 육지가 되어 버렸다. 그러니 가로림만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하겠다.

가로림만은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이 드러난다. 다양한 유기물과 갖가지 바다 생물이 살아 숨 쉬는 갯벌은 자연 학습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이다. 가로림만은 96.03km<sup>2</sup>의 넓은 갯벌을 간직한 곳으로 바지락, 굴, 홍합 등 어패류와 낙지, 주꾸미, 미역 등을 길러내는 서해안 최대의 황금 어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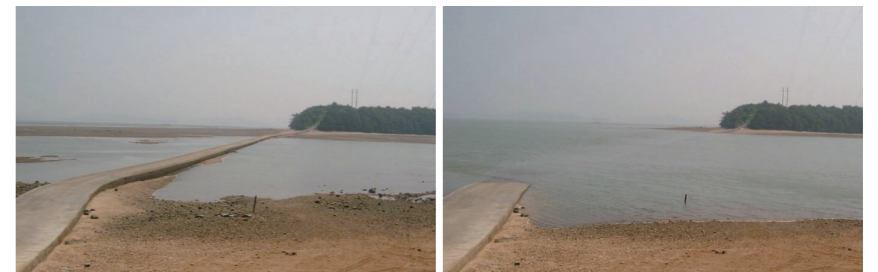
## 옹도 둘러보기

옹도를 찾아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너야 했다. 서산시에서 북서쪽으로 16km 해상에 위치하며, 서산의 북쪽, 육지 끝에서는 700m 떨어져 있는 섬인데 시멘트 포장길로 이어져 있다. 그러나 섬으로 가는 길이 늘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다는 하루 두 번, 서너 시간씩만 물길을 열어준다. 이런 섬은 진도의 모도, 완도의 토도, 고흥 우도, 웅진군의 측도, 서산 간월도 등의 작은 섬마을 풍경이기도 하다.

옹도는 가로림만의 기름진 갯벌에 둘러싸인 작고 아담한 섬으로,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질 때만 '유두다리'를 건너 들어갈 수 있는 해안선 길이가 5km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지만,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갯벌이 장관이다. 대표적인 생산물은 바지락이다.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옹도로 들어가는 길은 한적했다. 옹도로 가는 육로인 '유두다리' 앞에 서자 바닷물이 빠져나간 가로림만의 광활한 펄이 한눈에 들어왔다.

물이 서서히 들어오다 잠긴 도로



웅도에는 소나무가 참으로 많았다. 소나무들은 그대로 군락을 이룬 채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다. 섬으로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어리굴젓체험마을’ 안내판이 세워져 있는데 800m 전방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을로 들어가면 온통 논과 밭이다. 섬에 이렇게 밭이 많은 곳은 드물 것이다. 섬 안은 농지, 섬 밖은 뽕밭. 텅 빈 갯벌에 행하니 멈춰선 고깃배는 힘없이 늘어져 한낮 어촌의 평화로움을 전해주는 듯하다. 섬 여기저기의 제법 넓은 땅에는 어김없이 벼를 심어 주민들의 부지런한 농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많은 주민들은 갯벌에 의지해 삶을 살아간다. 갯벌에서 나는 바지락은 수십 년 전부터 이곳 주민들의 소중한 자원이다.

면적이 고작 1.58km<sup>2</sup>인 작은 섬인 웅도, 마을에는 장굴이라는 골짜기 외에 큰 골이 있고 인근에는 매가 많이 앉았다는 ‘매섬’이 있다. 장굴, 큰굴, 동편말 등의 섬마을에 사는 주민은 모두 54가구에 190여 명이다. 소달구지로 명성을 얻기 전에는 일년내내 외지인의 발길이 닿지 않던 곳이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이다. 다리 입구 쪽에 있는 웅도에서 가장 작은 마을인 동편말을 지나면 바로 큰골마을이다. 웅도에는 마을이 모두 네 개인데 장굴마을, 큰골마을, 큰마을, 동편마을이 그것이다. 그리고 웅도 주민들이 갯일을 하는 곳은 세 곳. 위치에 따라 사라니, 창, 구미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뤄진다.

웅도 전체로 보면 건물이라고는 50여 민가와 마을회관 그리고 교회, 관공서라고는 해양경찰지서와 분교뿐이다. 이곳에는 분교가 있다. 대산초등학교 웅도분교다. 웅도분교는 1952년에 설립되었다. 학교는 서울 어느 골목 모퉁이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어린이집 같은 작은 공간이다.

섬 가운데 아담하게 들어선 웅도분교 역시 바다를 안고 있었다. 시소며 그네는 모두 운동장에 있는데 유독 미끄럼틀만 교사 뒤 가파른 언덕에 뚝 떨어져 있다. 미끄럼틀에 올라보니 가로림만의 넓은 바다와 이어진 섬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곳이 바로 웅도의 전망대인 셈이다. 바닷길 저편에는 고파도, 조도 등 작은 섬이 웅도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웅도분교 옆에 마을회관이 있고 그 앞으로 도로가 이어진다. 물론 이 도로는 바다를 볼 수 없는, 소나무 등이 우거진 숲길이다. 틈틈이 역새들이 휘날렸다. 잘 가꾸어 놓은 정원을 거니는 기분이다. 전혀 섬이라고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색다른 도로다.

조금 더 가면 큰마을이 나타난다. 이곳이 선착장이 있는 웅도 중심지로 마을 입구에 웅도교

회가 있다. 교회 앞 건물이 선박출입항신고대행소다. 멀리 펼쳐진 웅도 앞바다에는 드넓은 갯벌이 지평선을 이루고 있었다. 참으로 광활한 뽕밭이었다.

썰물 때라 멀리 보이는 섬들도 그 속살을 드러내 물으로 변해 있다. 바닥을 드러낸 갯벌에는 작은 생물들이 분주히 오가며 바닥을 헤친다. 수확기만 지나면 행해지는 들녘과는 달리, 갯벌은 계절에 관계없이 평화롭고 생명력이 넘친다. 세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 갯벌을 찾아와도 여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갯벌을 터전삼아 일하는 사람들의 옷차림만 다를 뿐 갯벌은 그대로다.

썰물에 드러난 갯벌은 평야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넓다. 바지락을 캐는 작업장은 갯벌 입구에서 2~3km쯤 떨어져 있다. 거리가 멀다 보니 캐낸 바지락을 물으로 옮기는 것도 큰일이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지락을 가득 실은 소달구지가 갯벌을 가로질러 마을로 귀환하는 행렬은 이 마을의 대표적 풍경이 됐다. 웅도는 갯벌 위로 소달구지 행렬이 이어지는 장면 하나만으로도 낭만이 넘치는 곳이다.

언뜻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런 장면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는 것은 주민들이 갯벌에서 채취한 굴을 소달구지에 싣고 오가기 때문에 생겼다. 집집마다 농사를 병행하던 터라 소와 달구지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재산목록 1호였다. 그만큼 소중하면서도 대중적이고 보편적 동네 교통수단이다. 농촌에서는 경운기에 밀려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소달구지가 아직까지 명맥을 잇는 게 재미있다. 소달구지를 운송수단으로 요긴하게 쓰는 곳이 이곳 말고 또 있을까.

웅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빠지면 소달구지를 가지고 개펄로 나간다. ‘물펄’이라 무거운 경운기 바퀴가 빠지지만 전통적인 소달구지는 나무로 만들어서 빠지지 않고 잘 굴러간다. 바다의 염분 때문에 쉽게 부식하는 경운기나 트랙터가 자주 말뚝을 일으키자, 주민들은 소달구지를 만들어서 끌고 개펄로 들어갔다.

이제는 기계화에 밀려서 소를 이용해 쟁기로 땅을 갈아엎는 모습을 보는 것도 쉽지 아니한 풍경이다. 바지락을 달구지에 가득 싣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웅도는 ‘달구지마을’이란 닉네임을 붙여 주어도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웅도마을의 교회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을 만났다. “소 달구지 타고서 바지락 캔 지가 벌써 30년이 훨씬 넘었네유. 웅도의 바지락은 진달래꽃이 한창 필 무렵에 가장 맛있다”고 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 시작할 때에는 일일이 남자들은 지게에 지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바지락을 낚았다고 하였다.





소 달구지를 타고 바지락을 채취하러 가는 모습

물때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아침 일찍이 개펄로 바지락 캐러 가면 11시 정도에 소달구지가 마을로 돌아온다. 웅도 주민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였다. 공동 작업을 통해 적당한 양을 생산하고, 바지락 채취가 끝나면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와 뽕 낙지잡이까지 한다. 이런 것들이 끝나면 비좁은 땅이지만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웅도 주민들에게 걱정거리가 있다. 낙지가 여기저기 지천인데 가로림만 인근에서 대규모 간척을 통하여 만에 유입된 조류가 빠르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단다. 웅도의 명물은 바지락과 더불어 낙지잡이다. 웅도는 지금도 인근 중왕리 마을과 함께 낙지가 많이 잡히는 곳이다.

초여름에 시작하여 11월까지 잡히는 낙지는 맨손이나 혹은 배를 가지고 주낙으로 잡는다. 맨손으로 잡으면 한 사람이 하루에 40마리 정도를, 주낙질을 하면 100마리 정도 잡는다. 마리당 4,000~5,000원 정도 받으니 하루벌이가 쏠쏠하다. 그래서인지 비록 섬이지만 웅도는 가로림만과 함께 인근에서 알아주는 부촌으로 통한다.

그러나 지금은 펄이 점점 사라지고, 자갈밭이 드러난다. 해변의 산도 파이고, 갯지렁이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등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걱정이다. 미역, 톳, 우뚝가사리, 청각 등도 지천에 깔렸었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섬을 떠나면서

가로림만의 중심에 서 있는 웅도의 갯벌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 준다. 갯벌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온갖 생활하수를 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갯벌은 농지가 부족할 때 쌀 생산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공장 부지가 필요할 때는 공업단지로 사용하라고 자신을 희생한다.

지금까지 갯벌은 인간들을 위해 무엇이든 다 내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고마운 존재였다. 땅의 이익보다 9배나 많은 수입을 안겨주는 생명과 같은 갯벌을 이제는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바지락을 채취하는 주민들

